

“호남 균형발전·지속가능 성장 이끌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광주시청서 현장 간담회
광주~나주 광역철도·메가시티 고속도로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와 광주시가 철도·교통·AI(인공지능)·문화콘텐츠 등 주요 국가 지원 과제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위원회는 지난 15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호남 및 광주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훈 수석부위원장, 호남발전특위 위원, 고광안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해 광주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광주시의 정책적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KTX 호남선 공정운영(중편) 추진, (국가철도) 광주 신산업선 건설,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광주~전주), GIST 부설 AI 영재고 광주 설립, 미래모빌리티 인자부품 기능안전 시험지원 기반 구축,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등 주요 의제와 광주가 직면한 과제 및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KTX 호남선 공정운영(중

편) 추진은 영호남 간 KTX 운행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차 증편과 생활 인구 및 이용 수요를 반영한 공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 신산업선 건설은 광주와 전남·전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할 핵심 기반 시설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신산업선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는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예타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광역철도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광주~전주)은 행정수도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3차 국가 계획 반영과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GIST 부설 AI 영재고 광주 설립은 AI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위원회는 15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호남 및 광주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경제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우수영재 양성을 위해 영재고 27개 개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비와 총사업비 중액 및 운영비 국비 지원 등 재정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모빌리티 인자부품 기능안전 시험지원 기반 구축은 미래자동차 산업 핵심인

인자부품의 신뢰성과 기능안전 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 확보 등 장비 구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은 AI중심도시 광주의 특성을 살려 콘텐츠와 AI융합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보고한 안건들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지역 핵심 과제”라며 “국회 예산과 민주당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호남발전특위에서 면밀히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는 역사적

의미와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AI와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문화·예술 산업 발전, 교통·철도·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전국 최대 규모 벼 재배면적 감축...쌀값 상승 견인

전년보다 5295ha감소...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성과
정부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물량·공모사업 가점 기대

전남도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뤄내며 산지 쌀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정 생산 정책에 발맞춰 벼 타작물 전환을 적극 유도한 결과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도내 벼 재배면적이 14만 2443ha로 전년 대비 5295ha 줄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감축량(2만199ha)의 약 26%를 전남이 책임진 수치다.

국가데이터저 조사에 따르면 재배면적 감축 규모는 △전남 5295ha △충남 4515ha △전북 3629ha △경북 2723ha △경남 2254ha 순으로, 전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감소율은 3.6%로 8개 주요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이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올해 산지 쌀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5일 기준 산지 쌀값(80kg)은 22만 7816원으로 전년 18만2700원보다 4만 5116원 올랐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8만ha 감축 목표를 내세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했고, 전남도는 이에 맞춰 논·농·가류쌀·조식료 등 대체 작물 확대를 집중 추진했다. 농가 소득 유지와 농경지 활용도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전남도는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67대·17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1500ha·30억원) △조식료 재배단지 조성(200ha·2억원) △논·농 전문단지 8개소 조성(21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신정옥 (사)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전남도의 노력으로 모

처럼 쌀값이 회복되며 농업인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수확기 쌀값은 1년 농사의 보상이란 만큼 올해 가격 결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값 상승의 일등공신은 평생 벼농사를 지어오다 논·농·조식료로 전환해준 농업인”이라며 “벼 재배농가와 타작물 재배농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정부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물량, RPC 벼 매입자금, 고품질쌀 유통확대와 공모사업 등에서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출신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임명 이용철 방사청장·이정환 경사노위상임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지난 14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박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수로 학계와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임명됐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이 낙점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내부에서 발탁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이정철 개인정보와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이정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선임됐다.

이번에 인선된 6명 인사들 가운데

호남 출신은 3명이다.

중기부 2차관인 이병권 전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광주 출신이다.

1968년생으로 광주동신고를 거쳐 연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다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시대 소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활기찬 생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산업청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신흥고, 연세대를 나와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정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고려대와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한미 팩트시트...’서 계속

안보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농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처리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원원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국민에게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광주를 빛낸 시정 ‘베스트 10’은

군공항 이전·복합쇼핑몰 조성·AI중심도시 등

온라인설문·현장평가 등 1만2279명 참여 정책 공감

내달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서 최종 결정

광주시는 16일 올해 추진한 핵심 정책 가운데 ‘올해의 베스트 10’ 후보 정책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온라인 설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날’ 현장평가, 지역사회 리더 평가 등 시민 1만2279명이 참여해 선정했다.

후보 정책은 교통·안전, 문화·관광·체육, 복지·돌봄, 산업·경제, 환경·청년·교육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대표 정책이 뽑혔다.

주요 정책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무안군민의 이전 찬성여론 변화와 대통령실 주도 6차 전담팀(TF) 회의가 연내 개최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더현대 광주가 2028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오는 20일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가

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3년차를 맞아 돌봄·요양부터 의료방문까지 확대돼 전국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내년 3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AI중심도시 광주’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광주 도시 전체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국가 NPU컴퓨팅센터 건립, AI연구소 유치 등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 수질 및 악취 개선사업’은 4수원지 등을 활용한 하천 유량 확보, 하수관로 정비, 광주전 주변 악취 근원지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전수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 정책평가는 부서별 대표정책 65건을 대상으로 4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차 31건으로 압축한 뒤 5월 시민의 날 현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